목포환경운동연합
[우]58753 목포시 해안로 249번길 33-1
Tel 061) 243-3169 Fax 061) 244-7345
E-mail mokpo@kfem.or.kr
홈페이지 http://mokpo.kfem.or.kr
BAND https://band.us/band/58616156

발행일 2019. 2. 15. 제116호

물 맑으면 마음맑다

▶ 제23차 정기총회 (2019. 1. 17.)

안녕하십니까?

2월은 겨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달입니다. 짧아져 가는 겨울을 시기하는지 마지막 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봄이라는 계절이 찾아오니 즐겁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기다림과 설렘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회원 확대는 가장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회원확대 캠페인(50일)에 적극 참여하여 131명의 회원들을 환경연합의 새 식구로 맞아들여 2017년말 대비 46%의 회원증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을 마지막으로 발간이 중단되었던 소식지 〈물 맑으면 마음 맑다〉를 복간하여 격월 발간을 통해 회원소식, 활동공유, 지역사회문제 공유 등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난해를 도약의 발판 삼아 2019년에도 서남권 환경운동의 대표적인 단체로서 뿐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단체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지난 회원 총회에서도 결의한 바와 같이, 올해는 회원 전체가 1명 이상의 회원 추천을 목표로 하는 〈내 지인을 소개합니다〉 운동을 적극 펼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동참을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좋은 결실 이루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 신임공동의장

최송춘, 양승희, 박갑수 올림

쾌적한 환경을 통해서 말이오…

글 / 이경석 회원 충암고등학교장

지난 1월 10일에 방학식을 했습니다.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3월 개학에 맞추어 완공하기 위해서는 엄청 서둘러야합니다. 공사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거듭 협력회의를 이어갔습니다. 공사 일정이 빠듯해서 개학 후에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어쩌나 걱정합니다. 제발 개학 전에 끝낼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현장소장님께 간청했습니다. 방학 전 공사일정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학교에서는 관행대로 방과후학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자율학습은 소음으로 인하여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과 학부형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려야했습니다. 그래도 개학 후에 밝아질 학교를 생각하면 인내해야합니다.

43억 남짓 되는 예산으로 중고등학교 모든 건물의 실내 바닥과 외벽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은 공사하기에는 너무 짧아서 겨울방학에 몰아서 하게 됩니다. 실내의 모든 바닥을 보수하는 관계로 모든 집기도 옮겨야 해서 학교는 이삿 집 같습니다. 외벽은 마치 새롭게 옷을 갈아입히는 형국이니,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것 같습니다. 복도엔 실내의 집기가 가득해서 겨우 겨우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학교가 엄청 달라져있겠지요.

2017년 10월 처음 학교에 들어섰을 때의 그 충격이 잊히지 않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건물의 보수가 멈추어있었기 때문에 세월이 멈추어있는 듯했고,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건물 같았습니다. 학교법인이 자체경비로 학교를 잘 관리하던지, 아니면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던지 했어야했겠지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심정이 오죽했을까 싶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개선해야할 곳이 아직도 여러 곳입니다. 건물 바깥 창호, 자습실, 도서실, 방송시설 등 큼직한 것들만 나열해도 많습니다. 이 건물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 아쉬운 투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전면개축을 시도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학교법인의 재정이 충분하다면, 혹은 장기발전계획이 분명하다면 전면개축으로 가야합니다. 국민세금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2008년도 D등급, 2013년도에도 D등급으로 개축대상 학교였습니다. 2014년도 세월호 사건이후 위험건물 관리차원에서 구조안전보강공사를 실시한 것이 2015년 초입니다. 2018년도에 정밀안전검사를 통해 안전등급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무너질 만큼 낡았는데, 정밀검사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합니다. 보강공사를 했다하지만 건물 안과 밖은 여전히 슬럼화된 상황입니다. 그럼 보강공사 및 환경개선이라도 하자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환경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곳이었지요. 선생님들의 마음은 이미 떠나있고, 몸도 떠나고 싶은 곳이었겠다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 머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임시이사가 파견되고 나서도 한동안은 기존의 상황을 파악하고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쳐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구멍 난 수백 곳 메꾸고, 여기 저기 낡은 곳 새롭히며 버티어 왔습니다.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1월 1일자로 교육청 파견 공무원이 행정실장으로 파견되니 업무가 빨라집니다. 행정실장님이 교육청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하는 셈이지요. 그러나 원만한 학교경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바깥 학교환경이 개선되면, 그 다음에는 학교 안을 꼼꼼히 살펴야겠습니다. 흩어진 마음들을 모으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함께 모색해야합니다. 학교에 대한 신뢰는 교직원들로부터 비롯합니다. 선생님들이 바로 서야 학교가 바로 서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드려야겠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아이들과 수업을 향하도록 도와드려야겠습니다. 사무실 밖에서는 망치 두드리는 소리, 시멘트 버무리는 소리, 그리고 바닥을 긁어내는 소리가 한창입니다. 이곳 교장실도 새 단장하도록 곧 비워드려야겠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넘어 고통까지도 감수해야겠습니다.

서울 학교로 간다며 인사드리러 갔을 때, 작고하신 서한태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오. 쾌적한 환경을 통해서 말이오.” 서 박사님 당부대로 제가 머물고 있는 이곳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조금 더 쾌적한 곳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변화에 모순이 뒤따른다

글 / 강제석 회원 자문위원, 유기농생산자

PLS(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전면시행의 문제점

PLS제도의 전면 시행은 양손 들고 환영한다. 국민의 생명을 농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야 말로 환영할 만한 제도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농가와 농약 판매점에서 농약이력관리를 해왔다.

A농가가 B농약을 구매해 C작물에 몇 회 사용 했다는 이력을 추정하여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70년대 후반부터 이런 제도는 있었다. 다만 극약과 독약을 구분하여 맹독성 여부를 판단하고 농민의 생명 보호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여기서 농민의 생명 보호와 PLS제도하의 국민의 생명 보호와는 차이가 있다. 농민의 생명보호는 뭔가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농약 사용의 초창기였고 농민들 이 잘못하여 음독 했을 때 병원치료의 단서를 찾아 해독의 근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판매내용을 기록하는 농약 판매점도 없었지만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 지금까지 40여년간 해오지 않은 고정관념을 누구도 깰 수 없다. 농약상은 세금자료를 은폐해야 하고 귀찮은 일이기 때문이다.

농민은 농사 일기를 통해서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일기를 쓰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 우리 문화는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16년 제1차 PLS제도 시행부터라도 꾸준히 계몽하고 규제를 통해서 연습을 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농민들은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모른다. 농약상이나 농약을 제조하는 공장들은 인지는 하였으나 손 놓고 있는 정부를 좋아했고 포괄적 농약을 만들어 왔다, 이른바 종합 살충 살균제란 이름으로 품목고시를 하여 떼돈을 벌었고 정치 자금으로 상납하였다. PLS제도에서는 모든 농약은 작물별 병해별, 충해별 품목 고시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약제품의 품목 고시는 외국의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 진딧물 약의 예를 들어보면 국내 시판되는 진딧물 약은 600여종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진딧물이나 응애류의 해충은 내성이 강하여 같은 약제는 금방 적응하여 재 살포하면 선방제 약제에는 효과가 없다. 따라서 지역별, 온도별, 작물별 각종 생육환경에 따라 진화되는 진딧물을 방제 하기 위해서는 수십 수백 종의 약제가 탄생하고 수장되고 있다. 농민들은 제품 이름도 어려운 농약 이름을 알 수가 없다. 다만 원예사(농약상)들은 어느 정도 이해 하지만 ERP(전사적 자원 관리시스템), 전자 장부를 도입하지 않으면 이력관리가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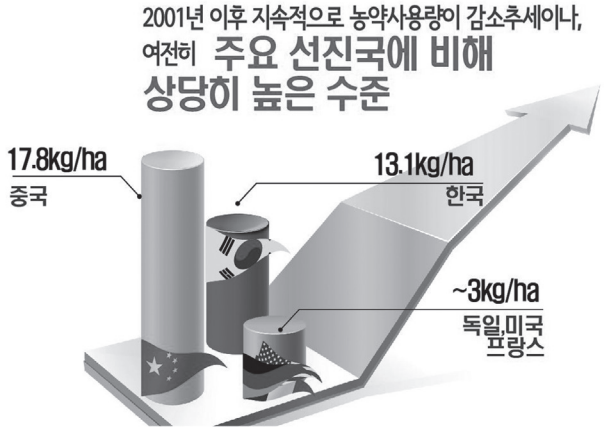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라는 정부의 큰소리에도 지방 자치단체는 소극적 자세의 표본이다. 금년에도 2월 중순이면 농민들은 농약 사용을 시작 한다. 그러나 정부, 농약상, 농민 모두 PLS를 시행한다는 말을 들었다. 농관원은 잔류농약을 지속검사하고 관리·감독 하게 될 것이고 농민은 범죄자가 될 것이 분명 하다.

-나귀 앞에 당근 매달고 따라가게 하는 것과 같다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다. 이상할 게 전혀 없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겨울철 농한기 영농교육과 품목별 농업 교육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해야 할 일이 또 있다. 농약병의 적극 수거이다. 현금보상하고 있지만 수거장소가 군단위에 1개소 정도 고령 농업인들이 2~30km까지 가서 농약빈병을 판매하는 것은 쉽지 않다. 농약병도 판매자 수거제도를 하던지, 마을단위 수거책임자를 두고 적극적 회수에 임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의 강과 하천은 농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또한 사용하다 남은 농약을 회수해야 한다. 농가들은 몇 년씩 방치하거나 버려지게 되고, 사용년도가 지난 농약들을 포함하면 그 양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로 인한 인축에 해가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PLS제도를 시행하면 모든 것이 안전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며 오만한 행정편의주의로 판단된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농약제조회사들의 오만도 근절해야한다. 다국적기업들이 대다수 농약을 제조 판매 하는데, 기업의 이윤 외엔 국민들의 편의, 안전문제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이다. 법을 피해 가는 기막힌 제주만 부린다. 사용자 안전에는 배려하지 않고 있다. 병뚜껑의 안전장치로 어린이들로부터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색깔표시등으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편의는 제공하지만 사용방법 등의 원칙이 일원화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량 물20ℓ에 0.5㎖, 10㎖, 20㎖, 100배액, 500배액, 1000배액 등 사용 배수를 통일해야 한다. 농가들은 손쉽게 계산되지 않는다. 물론 기술센터나 행정기관에서 교육 하지만 각 제품에 대한 배수는 행정에서 할 수 없다.

만들어진 제도에 따라오라고 하는데 모두가 자발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명감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 영국에서는 이 제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시행시기를 늦추고 좀 더 준비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농식품 안전에 취약한 국가에 다국적 농산물의 판매촉진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먹히게 된다. '약육강식' 사자성어 그대로다. 모두가 오케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시작 합시다.



기 다 립 니 다

회원들의 자유로운 글(수필, 시, 사설, 축하글 등)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어드립니다.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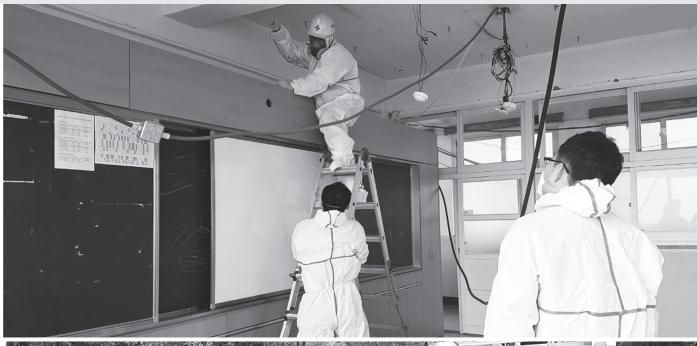
03일(월) 3차 총회준비위원회
04일(화) 무안군 대규모 돈사 건설 반대 집회 연대활동 (무안군청)
06일(목) 석면해체 사전설명회(영흥고) / 고문·지도·자문 간담회
07일(금) 민선7기 정책실현을 위한 목포시민사회네트워크 (목포아이쿱생협)
08일(토)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표자회의
12일(수) 4차 총회준비위원회
19일(수) 5차 총회준비위원회
21일(금)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 관련 토론회 (목포시청 회의실)
22일(토) 유달산 둘레길 걷기
26일(수) 6차 총회준비위원회
27일(목) 집행위원회 간담회

1월

02일(수) 석면 모니터단 활동 (영흥고_보양상태 점검)
03일(목) 7차 총회준비위원회
04일(금) 석면 모니터단 활동 (제일중_사전청소 점검)
10일(목) 제211차 집행위원회
11일(금)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목포지부 집행위회의
14일(월) 석면 모니터단 활동 (영흥고_잔재물 조사)
17일(목) 제23차 정기총회 (목포오거리문화센터)
18일(금) 석면 모니터단 활동(제일중_잔재물 조사)
21일(월) 민선7기 정책실현을 위한 목포시민사회네트워크 (전남여성장애인연대)
22일(화) 팽목 기억공간 조성 촉구 기자회견(진도군청)
24일(목)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1차 (환경운동연합 사무국)
25일(금) 세월호 잊지않기 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 집행위
27일(일)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2차
28일(월) 손혜원 의원 의혹 관련-목포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목포근대역사관 1관)
30일(수)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1차 (해남 묵동리, 진도 하조도)
31일(목) 신임 집행위원 간담회

· 무안군 대규모 돈사 건설 반대 집회 연대활동

· 석면해체 모니터링



·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 관련 토론회

· 목포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8년 12월

(유)사람과사람/(유)서남환경/(유)일우산업/(주)세일산업/(주)수다방게스트하우스/(주)현성건설/해바라기치과의원/우진건설/목포대성신협/감의갑(장미선)/박미옥(박주익)/장동춘(박민아)/강경숙/강구일/강대화/강덕수/강동호/강명곤/강석원/강영규/강제석/강창원/강철수/강혜정/고경석/고광업/고광진/고성철/고윤혁/곽기태/곽신영/곽재구/국순천/권수한/김가영/김경미/김경완/김공경/김광미/김광호/김귀영/김근순/김기봉/김나영/김대중/김도형/김동욱/김명숙/김명종/김명화/김명희/김무영/김미영/김미정/김미화/김민국/김민근/김민지/김병옥/김병주/김상훈/김선남/김성길/김성륜/김성희/김수린/김숙자/김승현/김시연/김심옥/김애자/김연호/김영남/김영식/김영운/김영재/김영준/김영현/김영호/김옥/김완석/김용구/김용임/김용진/김웅기/김윤임/김은미/김일용/김재영/김재혁/김정민/김종국/김주재/김지연/김진영/김진형/김진희/김창식/김창훈/김탁/김태근/김태웅/김해성/김행연/김현곤/김현숙/김현주/김형기/김형애/김홍안/김화래/김화영/김희주/나광봉/나양명/나천귀/남명숙/남주연/노애란/류미현/마흥식/모원종/무관/문경진/문원규/문철주/문호/민경관/민경택/박갑수/박경양/박기남/박기성/박기철/박기훈/박대성/박동구/박동환/박미덕/박미정/박병구/박서근/박성원/박성현/박수현/박순미/박영윤/박용일/박용호/박유정/박유진/박윤길/박은희/박재신/박재홍/박종선/박종섭/박종위/박지현/박찬우/박창수/박창우/박천웅/박철수/박최균/박필수/박한진/박헌/박현/박현경/박현숙/박혜숙/박화진/박희성/배동희/배서영/배영식/백동진/백수정/백재봉/변재영/봉형구/서병권/서석철/서연순/서정만/서한배/설지연/성보석/성상훈/소복례/손문선/손봉현/손철주/송두호/송영미/송원천/송정미/신경희/신동영/신현령/신현인/양덕수/양승희/양정호/양주동/양진국/양창숙/양현주/양효식/염미순/염송주/오경섭/오미선/오숙향/오영출/오왕근/오하늘/오현주/옥선필/위준철/유대홍/유영업/유원석/유은숙/유지원/유효진/윤기현/윤남/윤동준/윤선미/윤선영/윤성광/윤성수/윤원희/윤종인/이경매/이경석/이경숙/이경아/이경택/이광봉/이내홍/이동훈/이명희/이봉섭/이상엽/이성환/이송환/이수/이승용/이승한/이승환/이용철/이우주/이원기/이일호/이재경/이재우/이재이/이재헌/이정남/이정식/이종훈/이준화/이지우/이지현/이창일/이창헌/이태환/이현승/이현정/이현진/이형광/이형완/이화덕/임경숙/임성남/임성진/임은아/임진욱/임창옥/임혁/장관호/장근천/장영미/장이주/장이진/장이현/장재연/장지은/장진실/전경란/전상보/전성열/전용원/전준수/정거배/정고운/정권율/정귀정/정기심/정동욱/정수민/정수정/정순용/정승원/정연수/정연우/정연희/정인숙/정일승/정중삼/정지범/정창권/정현찬/제갈경희/조경민/조동기/조미정/조상현/조선희/조성은/조애련/조애순/조영인/조옥현/조완오/조은일/조혜향/조호빈/진선우/차용만/차용훈/채희준/천정우/최경만/최국진/최대순/최명숙/최명식/최비호/최선/최성국/최송주/최송춘/최승희/최영섭/최영운/최예화/최완수/최은기/최은녕/최은주/최이문/최정삼/최정훈/최지우/최철수/최태옥/최현영/최화녕/최환석/하영성/한봉철/한양규/한은섭/한철준/허진홍/현인숙/홍갑석/홍광복/홍선기/홍성혁/홍택용/황민수/황혜미

| 목포환경운동연합 12월 결산보고 |

12월 1일 ~ 12월 31일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회 비	개인회비	5,447,000	사 업 비	교육사업	554,000
	단체회비	415,000		조사연구	0
소 계		5,862,000		홍 보 비	0
후 원 금		1,100,000		행 사 비	178,600
사업수익		2,000,000		연대사업	252,500
기타수익		1,950,000	소 계		985,100
이자수익		1,093	회 의 비	총 회 비	0
				위원회비	231,500
			소 계		231,500
			인 건 비	급 여	3,300,000
				복리후생비	662,390
				퇴직적립금	275,000
			소 계		4,237,390
			업무추진비	출 장 비	152,500
				활 동 비	82,000
			소 계		234,50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0
				수 선 비	52,000
				도서인쇄비	518,000
				통신광열비	268,370
				소모품비	24,000
			소 계		862,370
			환 경 기 금		100,000
			제세공과금		4,260
			지급 수수료		113,120
당월수입금		10,913,093	당월지출금		6,768,240
전월이월금		1,604,368	통장 잔액		5,749,221
합 계		12,517,461	합 계		12,517,461

■ 사업수익
- 200만원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 후원금
- 양승희 100만원
- 디자인그리다 25만원

■ 기타수익
- 일자리 안정자금 182만원
- 둘레길 걷기 참가비 13만원

2019년 1월

(유)사람과사람/(유)서남환경/(유)인동기업/(유)일우산업/(주)세일산업/(주)수다방게스트하우스/(주)현성건설/목포대성신협/우진건설/특허사무소 다임/해바라기치과의원/감의갑(장미선)/박미옥(박주익)/장동춘(박민아)/강구일/강대화/강덕수/강동호/강명곤/강석원/강성휘/강영규/강제석/강종량/강창원/강철수/강혜정/고경석/고광업/고광진/고성철/고윤혁/곽신영/곽재구/국순천/권가별/권수한/김가영/김경미/김경완/김공경/김광미/김광호/김귀영/김근순/김기봉/김나영/김대중/김도형/김동욱/김명숙/김명종/김명화/김명희/김무영/김미영/김미정/김미화/김민국/김민근/김민지/김병옥/김병주/김상훈/김선남/김성길/김성륜/김성희/김수린/김숙자/김순영/김승현/김시연/김심옥/김애자/김영남/김영식/김영운/김영재/김영준/김영현/김영호/김옥/김완석/김용구/김용임/김용진/김웅기/김윤임/김은미/김일용/김재영/김재혁/김정민/김종국/김지숙/김지숙/김진영/김진형/김진희/김창식/김창용/김탁/김태근/김태수/김태웅/김해성/김행연/김현곤/김현숙/김현주/김형기/김형애/김홍안/김화래/김화영/김희주/나광봉/나양명/나천귀/남명숙/남주연/노애란/류미현/류은경/마흥식/모원종/무관/문경진/문원규/문철주/문호/민경관/민경택/박갑수/박경양/박기남/박기성/박기철/박기훈/박대성/박동구/박동환/박미덕/박미정/박병구/박서근/박성원/박성현/박성휘/박수현/박순미/박영윤/박용일/박용호/박유정/박유진/박윤길/박은숙/박은희/박재신/박재홍/박정록/박종선/박종섭/박종위/박지현/박찬우/박창수/박창우/박천웅/박철수/박최균/박필수/박한진/박헌/박현/박현경/박현숙/박혜숙/박화진/박희성/배동희/배서영/배영식/백동진/백재봉/변재영/봉형구/서병권/서석철/서연순/서정만/서한배/설지연/성보석/성상훈/소복례/손문선/손봉현/손철주/송두호/송영미/송원천/송정미/신경희/신동영/신현령/신현인/양덕수/양승희/양정호/양주동/양진국/양창숙/양현주/양효식/염미순/염송주/오경섭/오미선/오미선/오숙향/오영출/오왕근/오하늘/오현주/옥선필/위준철/유대홍/유영업/유원석/유은숙/유지원/유효진/윤남/윤동준/윤선미/윤선영/윤성광/윤성수/윤원희/윤종인/이경매/이경석/이경숙/이경아/이경택/이경택/이광봉/이내홍/이동훈/이명희/이봉섭/이상엽/이성환/이송환/이수/이승용/이승한/이승환/이용철/이우주/이원기/이일호/이재경/이재우/이재이/이재헌/이정남/이정식/이종훈/이준화/이지우/이지현/이창일/이창헌/이태환/이현승/이현정/이현진/이형광/이형완/임경숙/임성진/임은아/임진욱/임창옥/임혁/장관호/장근천/장영미/장이주/장이진/장이현/장재연/장지은/장진실/전경란/전상보/전성열/전용원/전준수/정거배/정고운/정권율/정귀정/정기심/정동욱/정성우/정성우/정수민/정순용/정승원/정연수/정연우/정연희/정인숙/정일승/정중삼/정지범/정창권/정현찬/정효준/제갈경희/조경민/조동기/조미정/조상현/조선희/조성은/조애련/조영인/조옥현/조완오/조원기/조은일/조혜향/조호빈/진선우/차용만/차용훈/채희준/천정우/최경만/최국진/최대순/최명숙/최명식/최비호/최선/최성국/최송주/최송춘/최영섭/최영운/최예화/최완수/최은기/최은녕/최은주/최이문/최정삼/최정훈/최지우/최철수/최태옥/최현영/최화녕/최환석/하영성/한봉철/한양규/한은섭/한철준/허진홍/현인숙/홍갑석/홍광복/홍선기/홍성혁/황민수/황형수/황혜미

| 목포환경운동연합 1월 결산보고 |

1월 1일 ~ 1월 31일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회 비	개인회비	5,654,000	사 업 비	교육사업	54,000
	단체회비	595,000		조사연구	0
소 계		5,557,000		홍 보 비	0
후 원 금		6,249,000		행 사 비	129,085
사업수익		100,000		연대사업	319,550
기타수익		150,000		역량강화	0
이자수익		0	소 계		656,310
중앙지원금		0	회 의 비	총 회 비	1,520,900
사업준비금		0		위원회비	292,500
			소 계		1,813,400
			인 건 비	급 여	3,558,800
				복리후생비	664,540
				퇴직적립금	313,333
			소 계		4,536,673
			업무추진비	출 장 비	0
				활 동 비	120,000
			소 계		120,00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0
				수 선 비	0
				도서인쇄비	18,000
				통신광열비	179,000
				소모품비	20,000
			소 계		217,000
			환 경 기 금		100,000
			제세공과금		6,470
			지급 수수료		152,060
당월수입금		6,499,000	당월지출금		7,448,238
전월이월금		5,749,221	통장 잔액		4,799,983
합 계		12,248,221	합 계		12,248,221

■ 사업수익

- 광고비 10만원 (손 현)

플라스틱 바다

– 지구의 바다를 점령한 인간의 창조물

찰스 무어, 커샌드라 필립스 (지은이) | 이지연 (옮긴이) | 미지북스 | 2013-09-201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의 최초 발견자 찰스 무어 선장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플라스틱 해양 오염의 실상을 파헤치다

오늘날 플라스틱은 연간 3억 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무어 선장은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모두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오늘날 대기업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책임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무어 선장은 독일의 그린닷(green dot) 프로그램처럼 플라스틱 포장재를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하고 사용한 물건을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경제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 했다

산드라 크라우트바슈 (지은이), 류동수 (옮긴이) | 양철북 | 2016-09-07

"화학물질이 안 좋은 건 알지만 별수 없잖아." "비닐 포장을 해야 신선하고 오래가지."

"쓰레기 분리배출만 잘하면 되는 거 아냐?"이런 생각을 하는 당신에게 권하는 책!

플라스틱으로 뒤덮인 세상에 대한 어느 평범한 가족의 유쾌한 반란이 시작된다!

우리는 화학물질의 바다에서 살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쓰는 수많은 플라스틱과 비닐의 성분이 무엇인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건강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른다. 이런 우리와 다를 바 없던, 그저 쓰레기 분리배출은 잘한다고 스스로 우쭐해하던 보통의 가족이 감히 '플라스틱 없이 한 달 살아 보기'에 도전했다. 그들은 왜 이런 실험을 감행하게 되었을까? 이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제대로 먹고살 수나 있었을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엄청난 역경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재미있고 유쾌하게 '플라스틱 없이 살기'를 해나간 산드라 가족의 좌충우돌 실험 보고서다.

물티슈가 지구를 아프게 해요! 물티슈의 환경오염

최근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러 #운동 들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곳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어 #환경오염 이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생활 에 필수품으로 깊이 자리 잡은 #물티슈 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물티슈는 '21세기 최고의 발명품 '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휴대성과 편리성 이 뛰어나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는데요. 생활 속 편리함으로 가려진 물티슈의 문제점을 함께 알아봐요!

매일 쓰는 물티슈가 플라스틱이라고?

물티슈가 환경오염의 원인인 이유는 바로 물티슈 원단에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과 방부제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시간은 불과 몇 분이지만, 분해되는데는 무려 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편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물티슈를 포함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에 따르면 대한민국 평균 성인이 월 60회 이상의 물티슈를 사용하는 수치가 나온다고 해요. 20대의 경우 53.8%, 30대의 경우 70.8%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플라스틱 제품의 계속된 사용으로 매년 바다로 플라스틱 성분의 쓰레기가 800만 톤이 유입되고 있다고 해요.

물티슈가 끼치는 악영향

특히 물티슈에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소비자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물티슈의 무분별한 사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알고 보면 빨대 보다 더 많은 폴리에스테르 성분과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중금속 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이리저리 떠다니던 플라스틱은 5mm 이내로 아주 잘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 이 되어 식용 소금에까지 들어가, 결국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인간의 식탁으로 돌아오게 돼요.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보다 작은 나노플라스틱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뇌와 태반에까지 침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물티슈 혹은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소비를 다 같이 줄여나가야 해요.

물티슈 대신 이것을 이용하자!

플라스틱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티슈의 편리성 때문에 계속해서 쓰다 보면 물티슈로 인한 환경오염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한번 쓰고 버리기 아깝다는 이유로, 사용했던 일회용 물티슈를 다시 빨아서 사용한다면 순식간에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을 생각해서 물티슈 사용을 줄여나갈 때인데요. 물티슈 대신 #가제수건 이나 #행주 를 이용해 보는 거 어떠신가요? 물티슈가 하는 일들을 거뜬히 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장의 가제수건을 쟁여두고 물을 묻혀 사용하거나, 가제 수건을 비닐팩에 보관해 외출할 때 챙겨나간다면 물티슈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티슈 대신 행주 혹은 걸레를 이용하여 오염된 곳을 닦는 방법도 있어요. 귀찮더라도 환경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해 자제하고 실천한다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막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한국환경공단 블로그 발췌〉

12~1월 새롭게 목포환경운동연합의 벗이 되어주신 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 최송춘 추천 : 특허사무소 다임, 김태수, 성보석, 강종량, 황형수
- 임경숙 추천 : 류은경, 손문선, 권가별
- 강대화 추천 : 박정록, 김순영
- 이현승 추천 : 이기식. 김유현, 이영주, 서정
- 조원기 추천 : 정순용
- 한양규 추천 : (유)인동기업
- 최선국 추천 : 김원이
- 자발적 가입 : 손봉현
- 최승희 추천 : 전경님

회비 증액 참여자 (2018. 1. 1.~ 2019. 2. 15.) 고맙습니다!

- 20,000원 증액 : 박갑수
- 10,000원 증액 : 김창식, 염미순, 국순천, 박재홍, 임성진, 오경섭, 양현주, 김성희, 박용호, 임진욱, 임창옥, 박 현, 박갑수
- 5,000원 증액 : 이현승, 박종선, 강덕수, 양정호, 강명곤, 김수린, 이 수, 박성휘, 홍광복, 유효진, 윤성광, 이동훈, 이성환, 이현진, 정중삼, 박화진 최송춘. 최선국

축하합니다!

- 양승희 회원 제10회 목포문학상 수필부문 본상 수상

영어조합 신안건정

신안건정 하늘물고기

대표이사 유 영 업

전남 신안군 증도면 돌마지길 115
Tel : 061) 276-3928 Fax : 061) 276-3929
Mobile : 010-2600-3928
E-mail : slowfish0124@hanmail.net
www.slowfish.co.kr

365 Company 사회적기업

LED 실내조명등
LED 가로등·보안등
태양광 가로등·보안등

유비에코
LED 라이팅

대표이사 이 승 용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719번길 22(2층)
Tel : 061) 273-0068 Fax : 061) 273-0069
Mobile : 010-7308-2239
E-mail : say8331@naver.com

세무사 하영성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하 영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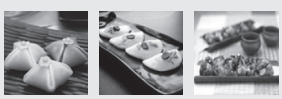
목포시 백년대로 183
전화 : 061-284-3335, 3314
팩스 : 061-284-3372
모바일 : 010-8143-5880

예다솜떡

대표 : 조원기

061-287-2228

목포시 선곡로 33
농협 목포 하나로 클럽내



40여가지의 음료와 100여가지의 다양한 떡
국내산 최상급쌀 100% 천연재료 사용

생산하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분해하는데 500년!!
플라스틱 빨대 NO!!

손 현 회원

포 마 린

혼다V6 / 야마하 V6·V8 커맨드 링크 전문점

FOUR MARINE
SINCE 1994

대표 최 은 기

T. 061-272-0118 / 010-9492-4707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21-11